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3월 14일 강의 계획서

## 강의에 들어가면서

1. 강의를 통해 얻고 싶은 열매들
2. 복음서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예수님의 탄생

### A. 서론적 강의

-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주는 세계사적 의미

### B. 본론적 강의

#### 1. 예수님의 족보(마태 1,1-17)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라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 엘아자르는 마란을 낳았으며 마란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십사 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십사 대이다.(마태 1,1-17)

(1)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2) 14세대씩 세 그룹으로 배열된 족보

① 세 그룹의 구분은 중요한 사건과 함께 이뤄진다

② 족보가 순서대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③ 마태오가 14대를 고집한 이유 - 다윗(דָּוִד)의 이름 숫자가 14이기에

(3) 41대로 끝난 족보의 의미

(4) 예수님 족보는 생명의 족보

(5)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네 명의 여인들

타마르(1,3), 라합(1,5), 룻(1,5), 우리야의 아내(1,6)

① 이방인 여자들임

②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여자임 또는 정상적 결혼관계가 아님

③ 왜 족보 안에 문제의 여성들이 들어갔는가?

## 2. 마리아에게 주어진 탄생 예고(루카 1,26-38)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루카 1,26-38)

### (1)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마리아의 소명

① 주님께 불린 사람들의 이야기(소명사화)가 통상 갖는 틀

(ㄱ) 상황이 묘사된다.

(ㄴ) 하느님이 또는 하느님의 천사가 불림 받을 자를 찾아와 사명을 부여한다.

(ㄷ) 불림 받은 자가 맡겨진 사명을 거부한다.

(ㄹ) 하느님은 사명을 거부하는 그가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사인을 보여주거나, 확신의 말씀을 주신다.

(ㅁ) 불림 받은 자가 비로소 사명을 받아들인다.

(2) 마리아의 "예"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3.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요셉의 반응(마태 1,18-25)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고 싶지 않았으므로 조용히 그녀를 소박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마태 1,18-20)

(1) 요셉의 나이

(2)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3)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란 이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마태 1,21-23)

① 예수(ישו)란 이름

② 임마누엘(עִמָּנוּאֵל)이란 이름: אֱל(하느님) נו(우리) ע(함께)

③ 예수란 이름 다음에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소개된 이유

4.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루카 2,1-7)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 요셉도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루카 2,1-7)

- (1) 마굿간에서 태어났는가? 굴에서 태어났는가?
- (2) 만왕의 주께서 왜 이처럼 비참하게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을까?
- (3) 과연 여관에 방이 없어서일까?

▶ 여관(παυδοχείον)이 아니라 사랑방(κατάλυμα)이다.

## 5. 목동들의 조배(루카 2,8-20)

- (1) 목동들에게 첫 조배의 영광이 주어짐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동들의 들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루카 2,8-12)

- (2)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2,13-14)

- (3) 마음속에 간직하신 성모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곱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 순테레오(συντηρέω)
- 곱발로(συμβάλλω)

## 6. 동방박사들의 조배(마태 2,1-12)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마태 2,1-12)

(1) 동방박사의 정체

- ① 마고스(μάγος, 복수는 마고이, μάγοι) = 천문학자
- ② 세 사람의 이름: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사르
- ③ 세 가지 선물의 의미

(2)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는가?

(3)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 ① 경배를 드리는 태도
- ② 구도 삶에서는 착한 벗(도반)의 필요성
- ③ 나쁜 친구란?

## 7. 헤로데의 어린아이 살육과 성가족의 이집트 피난(마태 2,13-21)

### 7.1. 헤로데의 교활한 계략과 분노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끊는 통곡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마태 2,16-18)

### 7.2. 성가족의 이집트 피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마태 2,13-15)

① 아름다운 전승

②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을 것임

#### 8. 갈릴래아 나자렛으로의 귀향(마태 2,22-23)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마태 2,19-23)

#### 9. 꿈을 통한 영적 성장